

공정성 논란 '광주 진보교육감 추대위' 자중지란

시민협 상임대표 "단일화 의지 없다" 돌연 사퇴

추대위 이번주 두차례 회의 ... 단일화·파국 갈림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광주 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인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가 출범 사흘 만에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추대위 공동상임대표를 맡는 등 중심축을 이뤘던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 상임대표가 탈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후보들도 경선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참여포기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추대위는 31일 오후 2시 공동대표단·집행위원회 연석회의와 다음달 3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최 대표 사퇴와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정회근 광주시의원과 윤봉근 예비후보가 공동 제출한 서면서가 추대위가 정한 기한을 넘김에 따라 그 유출성 여부도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의 서면서가 무효 처리될 경우, 추대위는 경선 없이 장휘국 현 교육감을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두차례 추대위 회의가 전교조 출신 후보 단일화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최 대표의 사퇴에 따라 추대위는 정체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추대위는 시민협을 중심으로 한 시

민사회진영과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노동운동진영이 양대 축을 형성하며 활동하고 있다. 시민협은 광주YMCA·광주환경연·광주경실련·광주후사단·참여자치21 등 광주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돼 있어, 시민협이 추대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후보라는 정체성이 희석된다. 특히 최 대표의 탈퇴 이유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추대위 운영의 불공정성에 기인한 데 따라 시민협이 다른 사안을 대표로 내세워 참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최 대표는 "추대위 내부에서 경선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단일화를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의지도 없고, 그럴 가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그동안 추대위에서 합리적인 경선 실시를 주장하며, 장휘국 현 교육감과 정·윤 후보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최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추대위의 사결정이 자칫 특정후보에게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토대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최 대표가 떠남에 따라 추대위가 일방적으로 장 교육감에게 기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전교조 출신 단일화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 후보가 '들러리'라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교조 출신 세 후보가 흩어질 경우, 일부 후보는 중도 또는 보수진영과 정책적 연대를 나설 가능성도 있어 선거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강운태 '선거 펀드' 개설 시민여론조사로 결정

1인 최저1000원, 최대1만원 소액 개미펀드 운용

재선 도전을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펀드'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강 시장은 '선거 펀드'를 개설하더라도 펀드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최저 1000원, 최대 1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는 소액 개미펀드를 운용할 방침이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30일 "선거 펀드가 지방자치 관심을 높이고 공정·투명한 선거자금 활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기관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선거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에비후보자들이 시민

들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선거 펀드' 개설이 있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펀드 모금 문자가 소셜 문자보다 더 짜증스럽다는 여론도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여론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 시장은 지난 2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정치혁신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자금모금 수단으로 활용되는 출판기념회도 열지 않을 만큼 시민과 기업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선거 펀드 모금도 지역민들의 여론을 구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고을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광주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2014 빛고을 대학생 봉사단'이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들어갔다. 발대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대학생들과 함께 봉사단 출범을 알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경도리조트 객실 외국인 투자자 분양 완화해야"

전남개발공사, 현 부총리에 건의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명동 한 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재 '문화융성·관광활성화 간담회'에서 전승현 사장이 여수경도리조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관광·숙박·문화·의료·음식 등 8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관광리조트를 대표해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리조트 1객실당 분양인원이 최소 5명 이상으로 돼 있는 규제로 인해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분양인원을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문체부 차관 등은 "해당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개발공사 측은 건의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투자유치에 여수 경도와 전남관광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수 경도는 전남개발공사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 해양복합관광단지조 조성해 현재 100실 규모의 콘도를 운영중이며 오는 5월 27일 플르장의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획일적 대학 정원감축, 지방대 위기 부른다"

사람대총장협 "지역 인재유출 가속 ... 권역별 특성감안해야"

정부 주도 대학구조개혁이 정원 감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경우 지방 대학과 전문 대학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지역 인재 유출의 가속화와 지방 경쟁력 약화,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조선대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에서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정부 주도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이 현재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국립대 대학, 수도권 상위권 대학, 지방 국립대 대학 등의 순으로 유리하고 수도권 전문대학, 비수도권 사립 대학, 전문대 순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합리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대입정원의 획일적 감축이 아닌 지역별·설립 주체별·유형별·소재지별(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거시적 차원의 추진 전략 마련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와 학령인구를 감안한 특성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대입 학령인구의 감소로 촉발된 구조개혁은 단순히 정원감축이라는 양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의 특성화, 글로벌화, 자율화를 바탕으로 한 질적인 구조조정 의 패러다임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5개항의 정부 정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 사항은 ▲대학구조개혁에는 정부와 대학의 공정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대학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철학

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도 대학과 함께 구조개혁의 비용을 분담할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는 설립주체(국립·사립), 소재지역, 규모 등 대학의 다양성이 반영된 공정한 평가 지표가 설정되고 평가과정에 대학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순수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입학 정원 감축 조건은 배제되어야 한다 등의 5개 항목이다. 총회 세미나에 이어 열린 서남수 교육부장관과의 대화 시간에서 서 장관은 "교육부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따기 위해 대학 발전방향을 수립한다면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며 "개별 대학의 유·불리가 아니라 전체 교육 생태계를 위해 함께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큰 고을 없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기초노령연금 2.4% 인상

광주시·전남도, 내달부터

광주시와 전남도는 "4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4%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65세 이상 단독(거주) 노인은 월 최고 9만 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2300원 인상하고, 노인부부 가구는 월 최고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3700원 인상,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단독노인은 월소득 83만원 이하에서 87만원 이하로, 노인부부 가구는 월소득 132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각각 4만원과 6만4000원씩 4.8%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3680만원(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억6208만원)까지 지급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을 48만원으로 확대해 월 근로소득 최대 135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35만2000원)까지 지급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무심는 사람들' 원당산 공원서 숲 복원 행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무심는 사람들'

(대표 강기정 의원·사진)과 사단법인 '나무심는 사람들'(이사장 조국현)은 지난 29일 광주 관산구 원당산 공원에서 지난 2011년 화재로 훼손된 관백나무 숲 복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강기정 의원과 민형배 관산구청장, 송광은 북구청장, 광주시의회 조호균 의장, 김영남·문상필·조소성 시의원을 비롯한 나무심는사람들 회원 가족 70여 명이 참석해 관백나무 2년생 묘목 1500 그루를 심었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가 화재로 훼손된 도시속 공원 숲을 복원함으로써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

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나무심는 사람들'은 나무심기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1년 발족한 단체로, 그동안 무등산과 5·18 국립묘지, 장성 축령산 등지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몽골에서 사막화방지 나무심기를 통해 황사저감 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은 강기정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참여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인기 전 의원 새정치연합 입당

최인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난 27일 입당했다.

농림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민생 제일주의 원

칙에 공감하고 호남정치 복원과 2017년 정권 창출의 밑거름이 될 각오로 신당에 참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오는 7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 13198	1	광양시 북포서길 96, 19층 3층 305호 [아파트]	아파트	35,000,000	35,000,000	
2013타경 16418	1	광양시 구마9길 11, 104동 5층 504호 [중대형]	아파트	41,000,000	41,000,000	
2013타경 17183	1	여수시 예불마루로 30, 103동 1층 104호 [중대형]	아파트	206,000,000	206,000,000	
2013타경 18063	1	여수시 방동로 366, 3동 2층 205호 [단독]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2014타경 21	1	여수시 소호5길 39, 301동 1층 102호 [소형]	아파트	102,000,000	102,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15613	1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174-2 1005㎡ [대지]	대	20,229,800	20,229,800	일광매각,제외
2013타경 17626	1	고흥군 광역면 백암리 1035-112 82㎡ [대지]	대	24,117,600	24,117,600	일광매각,제외

매각물건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14078	1	광양시 성황동 662-9 7728㎡ [현황대지,제외]	임야	1,313,760,000	1,313,760,000	현황대지및법면, 시외수속 [향나무외30주]매각제외
2013타경 14290	1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산5 3074㎡	임야	9,836,800	9,836,800	
2013타경 14849	1	여수시 돌산면 산동리 383-22 282㎡	임야	12,408,000	12,4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16852	1	고흥군 도량읍 용정리 산599-50 342㎡ [현황]	임야	5,130,000	5,130,000	임야도로, 임야권
	2	고흥군 도량면 오미리 산60-24 248㎡	임야	719,200	719,200	
2013타경 17848	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산1171 488㎡ [공유지]	대	1,502,000	1,502,000	공유자주선애수권
	2	고흥군 도량읍 용정리 산599-50 342㎡ [현황]	임야	1,502,000	1,502,000	현황대지
	3	고흥군 도량읍 용정리 산599-50 342㎡ [현황]	임야	8,106,000	8,10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1.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해 매각결과에 따라 매각액의 5%를 보증금으로 결정하고, 매각결과에 따라 확정된 대금지급금(잔액)을 매각자에게 지급한다. 단, 대금지급금(잔액)이 매각자에게 지급되는 날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각자에게 매각대금의 1%를 지급한다. 2. 매각결과에 따라 매각자에게 지급되는 날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각자에게 매각대금의 1%를 지급한다. 3. 매각결과에 따라 매각자에게 지급되는 날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각자에게 매각대금의 1%를 지급한다. 4. 매각결과에 따라 매각자에게 지급되는 날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각자에게 매각대금의 1%를 지급한다. 5. 매각결과에 따라 매각자에게 지급되는 날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각자에게 매각대금의 1%를 지급한다. 6. 매각결과에 따라 매각자에게 지급되는 날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각자에게 매각대금의 1%를 지급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9. 기타사항